



지방세정 담당 공무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아 산 시
[세 정 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해외 지방세입 사례 비교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선진 지방세정을 펼치기 위한 도·시군 지방세정 담당 공무원 합동 국외출장 결과보고임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연수국의 조세제도 조사·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 (연수기간) 2023. 5. 17.(수)~5. 24.(수)(6박8일)
- (연 수 국) 프랑스, 스위스
- (연수인원) 18명(도 2명, 시군 16명)
- (출 장 자) 세정과 황○애
- (방문기관)

국가	일시	방문기관	비고
프랑스	5월18일(목)	파리19구 세무서 (CRS PARIS)	현지조사
	5월19일(금)	페리니 라 로즈 시청 (MAIRIE DE PERIGNY LA ROSE)	브리핑 및 질의응답
스위스	5월22일(월)	칸톤 루체른 (Kanton Luzern)	현지조사
	5월23일(화)	마텐 게마인데 (Gemeinde Matten)	브리핑 및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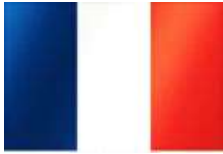
II

출장내용

- 주요내용 및 국가별 특이사항
 - 연수단 3개 분임(지방세 과세체계 조사·분석, 지방재정 운용현황 조사·분석, 체납처분 및 납세자보호제도 조사·분석) 편성 및 과제 부여를 통한 능동적·적극적 연수 참여

- 해외 지방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세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 발전방안 모색
- 지방분권제도가 발달한 프랑스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부과·징수 제도 조사하여 우리 시·도 접목방안 연구

◎ 프랑스(5.17.~5.20.)

프랑스(France)	
국 기	 ▷ 청색(자유), 백색(평등), 적색(박애)를 의미
국 명	- 프랑스 공화국
수 도	- 파리(Paris)
언 어	- 프랑스어
면 적	- 5,490만 8,687ha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국가원수	- 대통령 : 에마뉼엘 마크롱 - 총 리 : 엘리자베트 보른
인 구	- 6,475만명
종 교	- 가톨릭 및 개신교(52%), 무교(34%), 이슬람교(3%), 유대교(1%), 기타(10%)
기 후	- 대부분 지역이 서안 해양성 기후이나, 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 남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경제·물가	- 국내총생산 : 2조 9,374억 달러 / 세계 7위 - 1인당 GDP 4만 3,518달러 / 세계 21위

〈방문기관〉

◆ 파리 19구 세무서(CRS PARIS)

- (소재지) 5-7 Pl. Armand Carrel, 75019 Paris
- (방문일자) 2023. 5. 18.(목)

◆ 페리니 라 로즈 시청(MAIRIE DE PERIGNY LA ROSE)

- (소재지) 7 Rue de l'Église, 10400 Périgny-la-Rose
 - (방문일자) 2023. 5. 19.(금)
-

1) 행정기관

- 프랑스는 코뮌(commun), 데파르트망(departement), 헤지옹(region) 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최소 행정기구인 코뮌은 자치권이 보장되고, 예산편성·집행 및 의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무를 처리함
- ⇒ 우리나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권한을 양분하여 서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인 것에 비해, 프랑스는 코뮌 의회의 장이 집행부의 장을 겸하는 기관통합형 형태임

2) 조세체계

- 프랑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세목, 등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지방세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인구, 도로 길이, 학생 수 등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임
 -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재산(건축물, 토지)과 관련된 세목이 많으며, 건축물과 토지의 가치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
- * 건축물은 대여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세액 결정하며, 토지는 용도 및 지목 등을 고려하여 세액 결정
- ⇒ 우리나라는 시·도 및 시·군·구 조례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액을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있음

3) 재산세

- 프랑스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은 재산세로, 부동산세(부동산 보유), 주민세(거주자), 사업소세(수익활동), 부유세(특별한 재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코뮌에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별로 과세함
- ⇒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부분은 차이가 존재하나, 프랑스 재산세 과세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함

《 질의응답 》

Q.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체납처분 하나요?

A. 코뮌은 행정조직이 작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독려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Q. 프랑스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낮은 세율에 투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A. 세율을 통해 부과하는 것 중 대표적인 세목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주민들을 위해 대부분 재원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낮은 세율에만 투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스위스(5.21.~5.24.)

스위스(France)	
국 기	 ▷ 1339년 스위스 베른주 라우펜 전투에서 스위스군이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갑옷에 십자가를 새겨넣은 데에서 유래
국 명	- 스위스연방
수 도	- 베른(bern)
언 어	- 독일어(63%), 불어(23%), 이탈리아어(8%), 로망슈어(0.5%), 기타(5.5%)
면 적	- 412만 9,039ha
정부형태	-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
국가원수	- 대통령 : 연방각료 7인 윤번제(임기 1년), 알랭 바르세
인 구	- 873만명
종 교	- 가톨릭(35%), 개신교(23%), 이슬람교(5%), 기타(37%)
기 후	-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해양성 · 북유럽성 · 지중해성 · 대륙성 등 4개 기후권 교차
경제 · 물가	- 국내총생산 : 8,128억 달러 / 세계 20위 - 1인당 GDP 9만 3,457달러 / 세계 3위

〈방문기관〉

◆ 칸톤 루체른(Kanton Luzern)

- (소재지) LFinanzdepartment Regierungsgebäude Bahnhofstrasse 15 6002 Luzern
- (방문일자) 2023. 5. 22.(월)

◆ 매튼 게마인데(Gemeinde Matten)

- (소재지) Finanzen und Ressourcen Baumgartenstrasse 14 3800 Matten bei Interlaken
 - (방문일자) 2023. 5. 23.(화)
-

1) 행정기관

- 스위스의 행정체제는 연방국가, 칸톤, 게마인데로 이루어져 있으며, 칸톤은 스위스 연방을 이루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특히 게마인데는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로서 2,4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지방분권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반면 스위스는 ‘아래부터 위로’ 발전을 통해 성장해온 지방분권적인 나라로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임.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주민투표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가장 작은 기초자치체인 게마인데에서 학교, 사회제도, 에너지공급, 도로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임

2) 재정운영

- 스위스는 26개의 칸톤(Kanton)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이며, 루체른은 스위스 칸톤 중 하나로 루체른주 재무부에는 5개 부서(사무국, 관리예산과, 재정과, 조세과, 행정정보화과)를 운영 중이며, 재정운영은 조세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스위스의 재정운영 시스템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결산승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

3) 조세체계

- 스위스는 연방(연방직접세), 칸톤(칸톤세), 게마인데(게마인데세)가 모두 조세권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연방과 칸톤, 칸톤과 게마인데가 중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복과세(이중과세)가

허용됨. 다만 칸톤 간에는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음

⇒ 스위스 조세체계 중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이 본인들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질의응답 》

Q. 칸톤이나 게마인데에서 주민들이 직접 세율을 정하면 주민들은 세율이 낮은 쪽으로만 결정하지는 않나요?

A. 세금을 걷으면 학교, 도로건설 등 주민이 필요한 곳에 세금이 사용되어 주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로 낮은 쪽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시에 비해 외곽지역의 세율이 주로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Q. 도시의 주민들은 세금도 낮고, 생활·편의시설 등 혜택이 많게 되는데 사람들이 도시로만 몰려들지는 않나요?

A.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가 외곽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외곽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싸고, 기타 생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로만 인구가 편중되지 않습니다.

Q. 스위스에서는 악의적 탈세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탈세범에 대해서는 탈세금액 외에 수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

연수일정

일자	지역	내 용
1일차 (5/17/수)	인천 파리	인천공항 출발 (KE901편, 14시간 소요) 파리 국제공항 도착
2일차 (5/18/목)	파리	[방문] 파리 19구 세무서(car paris)
3일차 (5/19/금)	파리	[방문] 페리니 라 로즈 시청(maire de perigny la rose)
4일차 (5/20/토)	파리	문화탐방
5일차 (5/21/일)	파리 취리히 루체른	파리 출발 (LX633편, 1시간 20분 소요) 취리히 공항 도착 루체른 향발(1시간 30분 소요)
6일차 (5/22/월)	루체른 인터라켄	[방문] 칸톤 루체른(kanton luzern) 인터라켄 향발(2시간 소요)
7일차 (5/23/화)	인터라켄 취리히	[방문] 인터라켄 지역 매튼 게마인데(gemeinde matten) 인터라켄 출발(열차편/ICE, 2시간 소요) 취리히 출발(KE918, 11시간 35분 소요)
8일차 (5/24/수)	인천	인천공항 도착